

“미래의 문성민은 나야 나”



즐거움과 재미를 추구하며 좋은 성적을 거둔 천안 스카이워커스유스클럽.

사진제공 | 스포티즈

2017년 40명→현재 200명 훌쩍 체계적 프로그램...학부모들 관심 전국대회 준우승 등 깜짝 성과도

1일 2019 흥천 전국유소년클럽 배구대회 초등부 결승전이 한 스포츠 전문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었다. 스포츠 채널에서 클럽대회를, 더욱이 초등부 경기가 생중계한 것은 매우 드문 경우이다. 그만큼 배구 종목에서 유소년 클럽 활동의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2017년부터 시작된 천안 스카이워커스유스클럽은 초창기 40명으로 시작해 현재 200명이 넘는 배구 단일 종목의 유스클럽으로 자리를 잡아 가고 있다. U-9, U-11, U-13, U-15로 구분된 연령별 지도 시스템과 LV1부터 LV5까지 수준별 구분 지도까지 세심하게 노력을 기울이며 유소년들에게 다가가고 있다.

구단 관계자는 “천안의 배구에 대한 열기와 학부모들의 관심으로 유스클럽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체계적이면서 재미있는 배구 수업을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프로그램을 개발

해 나가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노력 아래 천안 스카이워커스유스클럽은 이번 전국대회에서 초등부 준우승, 중등부 3위라는 성적을 거두었다. 이 팀이 주 1회 기본 수업과 몇 차례의 보충 수업만으로 이 만한 성적을 거둔 데에는 자율적인 시스템이 큰 역할을 했다.

김민석 유스클럽팀장은 “우리 클럽은 모두가 배구를 통해 즐거움과 재미를 추구하는데 목적이 있다. 진지하고 집중적으로 훈련을 하되 절대로 압박적으로 하지 않는다”라면서 재미를 강조

했다. 또한 “모든 수업이 공개수업인 만큼 언제나 열려있으며 구단, 운영진, 강사진 모두가 항상 고민하고 토론하며 미흡한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라고 말했다.

천안 스카이워커스유스클럽의 고민과 노력을 통해 ‘재미있고 즐거운 배구’, ‘배구 종목의 저변확대’, ‘클럽에서 프로까지’라는 의미 있는 3가지 목표에 대한 도전은 과연 어떤 결실을 맺을 수 있을까. 천안 스카이워커스유스클럽의 미래가 기대된다.

허보람 객원기자 hughandong@naver.com

청춘스포츠

9

2019년 9월 10일 화요일

스포츠동아

전자랜드와 12년 동행 레전드 길 걷는 정영삼



전자랜드 정영삼

“나는 대구 출신이지만, 인천은 고향 같은 곳이다. 지금은 대구보다 인천이 더 편하다”. 전자랜드 ‘원클럽맨’ 정영삼(188cm)의 이야기다.

올 시즌을 앞두고 전자랜드와 3년 FA 계약을 체결하며 프랜차이즈 스타에서 레전드의 길로 순환 중인 정영삼은 “아직 레전드라 불리기에 부족하다. 한국 농구에서 ‘프랜차이즈 스타’가 많이 사라지고 있는데, 팀에서 좋게 봐주셔서 한 팀에서 오래 뛸 수 있다는 자체가 감사하고 영광이다”라며 겸손한 모습을 보였다.

어느덧 12번째 시즌을 맞는 그는 “유도훈 감독님 부임 이후 같은 색깔을 추구하고 있다. (올 시즌에는) 박찬희나 쇼터가 있기 때문에 공격적인 수비를 통해 속공을 전개해나가는 스타일의 농구를 선보일 것”이라며 올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는 “나를 제외하고 좋은 선수가 많다. 후배들이 워낙 농구를 잘해서 내가 코트에서 많은 플레이를 보여주기보다는 어린 선수들을 잘 챙겨서 팀 분위기를 좋게 끌고 나가는 게 중요하다”며 베테랑으로서의 면모를 보이기도 했다.

지난 시즌 정영삼은 데뷔 첫 챔피언결정전 무대를 밟았다. 이에 대해 “부끄러운 얘기다. 리그에서 오래 있었지만 챔피언결정전 무대는 처음이었다. 그래도 즐거웠다. 홈(인천 삼산월드체육관)에서 많은 경기를 소화했기에 별다른 느낌은 없었다”고 회상했다.

정영삼은 팀의 2년 연속 챔피언결정전 진출, 그리고 전 경기 출장을 다짐했다. 전자랜드와 정영삼의 12번째 동행을 기대해 본다.

배현호 명예기자(고려대 영어영문학과)

hnb95@naver.com

“스포츠 캐스터는 포장을 잘해야 합니다”

KBS N스포츠 캐스터 강성철 아나
“여러 종목에 대한 기본 지식은 필수
내용 전달력은 물론 순발력도 필요”



강성철 아나운서

스포츠 중계방송을 더욱 생생하게 만들어주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경기장의 현장감을 안방까지 전달하는 스포츠 캐스터다. 최근 스포츠 산업을 꿈꾸는 이들에게 관심도가 높은 직업이기도 하다. “이 타구는 어디까지~답장~넘어갑니다!”라는 흥런 콜로 야구팬들에게 친숙한 KBS N스포츠의 강성철 아나운서를 만나 스포츠 캐스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그가 처음부터 스포츠 캐스터를 꿈꿨던

것은 아니었다. “어린 시절부터 여러 가지 스포츠를 접했어요. 처음에는 체육교사가 하고 싶었죠. 실제로 교직을 위해 체육교육과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TV를 통해 스포츠를 접하면서 스포츠 캐스터라는 직업에도 관심이 있었어요. 주변에서 목소리가 좋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죠. 그래서 스포츠 캐스터에 도전했고, 결국 이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스포츠 캐스터가 되기 위해 필요한 역량에 대해 그는 “스포츠 캐스터라는 직업은 아나운서에서 온 직업입니다. 아나운서라

는 틀 안에 스포츠 캐스터가 있어요”라며 아나운서로서의 기본 소양에 주목했다. “말하는 능력과 카메라 앞에서의 능력, 내용 전달력, 순발력 등이 필요합니다.”

전문성에 대한 언급도 빼놓지 않았다. “여러 종목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중계방송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수준이 되어야 하죠. 물론 해설위원 수준의 전문성은 아니더라도, 경기의 흐름을 읽는 등의 능력은 필요해요.”

스포츠의 특성상 생방송이며 대본이 없기 때문에 항상 긴장의 연속이라는 강성철 아나운서. 하지만 그는 스포츠 캐스터라는 직업에 남다른 애정을 품고 있다. “시청률 2.9% 기록했던 적이 있어요. 많은 시청자가 방송을 보고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보람됐죠.”

인터뷰를 마치고 강성철 아나운서는 앞

으로의 각오를 남겼다. “스포츠 캐스터는 스포츠 그 자체를 포장하는 직업입니다. 스포츠 캐스터라는 직업 자체에 충실하고 싶어요.”

권유성 명예기자(남서울대스포츠비즈니스 전공)

clackddy97@naver.com



교육·퍼즐

에듀윌

합격자 동문회 '에공회' 운영

강주현의 퍼즐월드

WWW.경품광고퀴즈.kr WWW.매직스도쿠.kr

공인중개사 합격 후 취업·개업 돕는 ‘인맥북’

지난 2월 제29회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자 3000여 명에게 웬만한 사전보다 두꺼운 노란 책이 한 권씩 배달되었다.

600페이지에 가까운 이 두꺼운 책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 바로 에듀윌이 매년 발간하는 공인중개사 합격자 인명록 에듀윌 공인중개사 동문회(에공회) ‘인맥북’이다.

공인중개사는 여러 직업 중에서도 인맥 관리가 중요한 편에 속한다. 최근에는 부동산 거래 시 매수자 측과 매도자 측 공인중개사의 협업이 기본이 되는 경우가 늘고 있어 인맥 관리의 중요성 역시 더욱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오죽하면 ‘공인중개사의 최대 고객은 공인중개사’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이에 국내 공인중개사 최다 합격자 배출 기록을 가지고 있는 에듀윌은 수강생들의 합격 이후 성공적인 업계 안착을 위한 인적 네트워크 관리까지 지원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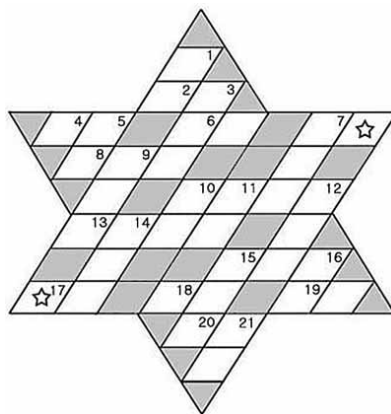


있는 것. 2009년부터 공인중개사 합격자 동문회인 ‘에공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는 합격자 인명록인 ‘인맥북’을 발간해 공인중개사

인맥 관리의 기반을 마련해주고 있다.

특히 이번에 발간된 ‘2018년 제29회 에듀윌 공인중개사 동문회 인맥북’은 역대 최대, 최초, 최다 규모를 자랑하고 있어 더욱 눈길을 끈다. 인맥북의 남다른 두께는 초기 에듀윌 인맥북과 비교해도, 두껍기로 소문난 고등학생들의 수학 바이블 ‘수학의 정석’과 비교해도 압도적이다. 올해는 기존 7개 지부가 올해는 10개 지부 규모로 늘어났으며, 지부별 행정구를 세부적으로 나뉘는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구성도 주목할만하다.

■ 낱말문제



■ 가로 열쇠

02.설이나 추석 따위의 명절을 앞두고 경기(景氣)가 가장 활발한 시기. 04.이부자리와 베개를 아울러 이르는 말. 06.산업이나 교통의 발달에 따라 사람이나 생물이 일게 되는 여러 가지 피해. 07.장사 따위를

하여 남은 돈. 08.기다리는 곳. 10.큰 차이 없이 거의 같음. 13.온 마음과 온 힘을 한곳에 모아 씀. 15.수학과 자연 과학을 아울러 이르는 말. 17.두 팔을 동글게 모아서 만든 둘레. 18.도둑이나 죄인을 묶을 때에 쓰던, 붉고 굵은 줄. 19.넓은 면적을 가지고 해양의 영향이 내륙부에게까지 직접적으로 미치지 않는 육지. 20.자기보다 벼슬이나 직급이 높은 사람.

■ 세로 열쇠

01.몸에 살이 찌서 크고 뚱뚱함. 03.나무로 가구, 창틀 따위의 물건을 만드는 곳. 05.사람이 누워 잘 수 있도록 만든 가구. 07.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주로 남자의 머리털을 깎아 다듬어 주는 곳. 09.사람으로 말을 만들어 겨루는 경기.

10.여러 국가가 넓은 지역에서 큰 전쟁을 벌임. 11.어떤 일을 발전시키고 밀고 나가는 힘. 12.나무나 풀의 살아 있는 날 잎. 14.남이 시키는 일을 하여 주는 일. 15.궁중에서, 임금에게 올리는 밥상을 높여 이르던 말. 16.몹시 괴롭히거나 가혹하게 대우함. 21.사기로 만든 국그릇이나 밥그릇.

■ 낱말정답

단어 이어가기:
낱말을 모두 풀
다음 ★를 이어
놓으면 여러분
이 잘 아시는 스타의 이름이 됩니다.

